다음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. 소리 내어 기사를 읽고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

(생략) 수면 부족이 기억력 감퇴나 시력 저하의 원인으로까지 지목되는가 하면, 이달 초엔 '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비만 위험이 커지게 된다'는 일본 와세다대 스포츠과학학술원 등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. 사흘 동안 매일 3시간 30분씩 잔 사람은 같은 기간 7시간씩 잔 사람에 비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10% 이상 감소했다는 것.

왜 세계 곳곳에서 이런 '잠의 재발견'이 이뤄지는 것일까? 그것은 일에 치여 사는 현대인이 오랜 세월 하루 7~8시간 '정상 수면'조차 버거울 정도로 힘겹게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(反省)인 셈이다. (생략)

– 조선일보 2017년 2월 15일





이 기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알맞은 제목을 써 보세요.

정답은 100쪽에 있습니다.

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